



[라이프]
연말연시 밝히는
백화점 외벽 불빛
하나의 작품이 되다

매일 아침 내 손 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초거대 AI,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2022 뉴테크놀로지 포럼

2022년 11월 23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폐렴타워 폐렴홀

metro® 경제

AI비서·가상인간 모델… 일상 속 혁신 ‘AI’, 미래 방향 찾는다

산업계 이슈로 떠오른 초거대 AI XR형태 메타버스 관련 산업도 부각 기술 기준 불명확·경계 모호 우려도 개발 흐름·성장 가능성 등 전략 공유

최근 국내 산업계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신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AI) 분야의 초거대 AI와 가상인간 등이다.

이에 네이버·SK텔레콤·LG AI연구원·KT·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의 AI 언어모델 GPT-3에 대응하는 초거대 AI 모델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초거대 AI를 검색은 물론 AI 비서, 쇼핑, AI 리뷰 요약 등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하고 있다.

가상인간 관련 분야 개발에도 활발하다. LG전자가 ‘CES2021’에서 가상인간 김래아(래아)를 공개했다. 래아는 가수로 데뷔할 예정이다. 또 싸이더스스튜디

오가 국내 최초 가상인간 인플루언서로 선보인 ‘로지’는 신한라이프 광고에 오랜기간 등장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가상인간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슈다. 브러드가 개발한 릴 미렐라는 뮤지션이면서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맹활약 중이며, 일본의 AWW가 선보인 가상인간 ‘이마’는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올라 포르쉐, SK-II 등 기업의 모델로 발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IT 기술의 발전과 빅테크의 적극적인 진출,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가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몰입감 높은 가상융합 공간과 디지털 휴먼 등을 구현하는 기술인 XR(가상융합) 형태의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 및 관련 산업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를 3D로 복제하고 AI 기술을 통해 동기화

한 뒤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스마트시티, 항공, 오일, 가스, 발전, 전력망 등 각종 인프라 및 제조 분야로 메타버스를 통한 구현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기술 성장 속도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당 기술이 갑자기 확대됨에 따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분야간 경계가 모호하다고 입모아 얘기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초거대 AI, 가상인간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초거대 AI의 개발 흐름과 기능, 가상인간의 최신 트렌드,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을 포함한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Jump over Metaverse Trap’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김 교수는 계

2022 뉴테크놀로지 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타임: 13:40~14:00
14:00~14:20	축사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개회사	김재하 한국메타버스학회 회장(서울예술대학교)
14:20~14:50	기조강연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 Jump over MetaVerse Trap
14:50~15:20		김영준 SKT AI기술유닛 유닛장 : 거대모델 동향 및 활동
15:20~15:50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AI협력팀 상무 : 메타버스 AI경계를 넘다
15:50~16:20		윤영진 네이버 AI 비즈니스 리더 : 사람을 위한 일상의 AI기술
16:20~16:50		유지형 제네시스랩 R&D 연구소장 : 가상인간, 그리고 Interactive Ai Human
16:50~17:20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 메타버스 확장을 위한 과제

임순기능 확산과 개인인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김영준 SKT 에이닷 대화 담당이 거대 모델 동향 및 활용에 대해 강연을 이어간다. 다음으로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AI 협력팀 상무가 메타버스 AI 경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현황을 설명한다. 윤영진 네이버 AI 비즈니스 리더, 유지형 제네시스랩 기업 부설 연구소 AI 연구원장,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각각 가상인간, 메타버스, AI 관련 사업에 대해 전략과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김영준
SKT AI기술유닛 유닛장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AI협력팀 상무



윤영진
네이버 AI 비즈니스 리더



유지형
제네시스랩 R&D 연구소장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Jump over Mataverse Trap’을 주제로 국내 메타버스·AI·가상인간 산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하는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에서 멀티미디어 프로듀서로 재직하면서, 약 300여 개 프로젝트의 게임·멀티미디어 타이틀 개발 및 제작, 라이선싱을 업무를 수행했다. 게임 개발사, 게임 전문 미디어, 게임 아카데미, 지스타국제게임전시회 사무국, E-City 마스터플래닝, 미국 현지 게임 회사 등의 조직 세팅과 운영을 해왔다. 아울러 게임순기능 확산과 게임인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영준 SKT AI기술유닛 유닛장은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전기통신연구원 음성처리연구팀에서 일하다 2008년부터 SKT 아메리카에서 근무했다. 이어 2018년까지 SKT AI기술유닛 음성인식팀장을 지낸바 있다. 2017년에는 한국공학한림원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100대 기술과 주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 유닛장은 거대 모델의 기술 동향 및 거대모델의 주목을 받게된 이유에 강연을 시작한다. SKT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대 모델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한다.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사업부 상무는 ‘AI·메타버스 경계를 넘다’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상무는 현실 세계와 연결된 디지털 세계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 장소, 사물, 프로세스 기술이 집합된 분야의 메타버스를 소개한다. 그는 메타버스는 산업용, 상업용, 소비자용으로 구분되며 각 분야의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메타버스의 초기기 모델과 현재의 메타버스, 미래의 메타버스의 단계별 진화방법도 설명한다. 이상무는 대림 IN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마이크로소프트 수석연구원을 거쳐 팀장, 최고기술 책임자로 활동해왔다.

윤영진 네이버 클로바 AI 비즈니스 리더는 한양대학교 컴퓨터과학 및 사회학 학사를 거쳐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MBA 석사를 마쳤다. LG CNS에서 금융사업부 데이터아키텍처팀을 거쳐 빅데이터/AI전략사업팀에서 일했다. 2018년 네이버에 입사해 클로바 AI 비즈니스 리더를 맡고 있다. 윤 리더는 이번 포럼에서 ‘사람을 위한 일상의 AI 기술’을 소개한다. 네이버는 최근 새로운 AI 개발방식인 ‘하이퍼스케일 AI’를 출시했다. 여기에 국내 유일의 AI 슈퍼컴퓨터를 사용했으며, 한국어 데이터는 5600 억 토큰을 적용했다. 기존 네이버 언어모델 대비 3000배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형 제네시스랩 R&D 연구소장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 및 사회학 학사를 거쳐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과학 공학석사를 놓았다. 토모큐브 엔지니어를 거쳐 앤비디아 AI 테크놀로지센터에서 연구 인턴을 지냈으며 제네시스랩에서 AI 사이언티스트 팀 리더를 맡고 있다. 유 리더는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가상인간을 접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유 리더는 이러한 가상인간들은 과연 얼마나 새로운 것일까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미 존재하던 기술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메타버스 확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이번 포럼의 마무리 강연을 맡았다.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타 영역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고 자문해주는 디지털 전문가를 말한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블록체인캠퍼스 학장과 자율규제위원회 규제위원 및 자문위원을 맡아 거래소 자격심사,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대응 및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메타버스 초기 서비스모델의 실패 요인을 진단하고 인문사회학적, 정부규제적 과제를 제시한다.

버스티비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5년 연속 수상…2관왕 등극
▲ ‘LOVE’만 보면 과민반응? FIFA 벨기에 유니폼 ‘금지’

/사진 뉴시스

▲ 국제축구선수협회 “카타르월드컵 노동자 인권, 개선돼야”
▲ 잉글랜드 몸풀듯 6골, 이란 최다실점 패배 굴욕 안겼다



▲ ‘광화문 거리응원’ 종로구 조건부 통과…서울시 최종결정
▲ 두산, 양의지 6년 최대 152억원에 영입…역대 최고액

/사진 뉴시스